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유리로 된 평평한 판으로 만든 필름부터 한국고전영화까지 최근 우리나라 역사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클릭하세요, 궁금했던 '역사'가 열립니다

유리건판 사진 3만8170점 디지털로
고화질 파일... 분야별·지역별 검색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소장 중인 유리건판 사진 3만8170점을 전부 고화질로 디지털화해 e뮤지엄(emuseum.go.kr)에 공개했다.

지난해 유리건판 사진 저화질 파일을 공개한 데 이어 1년 만에 A4 용지로 인쇄할 수 있는 고화질 파일을 온라인에 올리고,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리건판은 감광성을 지닌 액체 불질인 감광유제를 유리판에 발라 건조한 일종의 필름으로 20세기 초반에 널리 쓰였다.

이에 따라 페이지뷰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2월 초 유리건판 사진 페이지뷰는 일평균 30건이었는데 11월 이후 900건으로 30배 오른 것이다.

일제는 1909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와 만주 지역 문화유산과 풍습, 자연환경을 유리건판 사진으로 남겼다.

유리건판은 분야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를 검색하면 '중심사 오층석탑', '광주 무등산 원경' 등의 사진을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분야에서는 순천 송광사와 화순 운주사·쌍봉사, 해남 대흥사 등 1933건의 문화재 사진들을 검색할 수 있다. 또 정면, 측면에서 찍은 남녀 체격을 측정하는 사진들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유리건판 사진을 인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7년으로 600만 화소 파일 공개까지 32년이 걸렸다. 그동안 유리건판 목록집을 출간하고, 등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했다.

광복 이후 중앙박물관이 유물과 함께 접수한 유



▲광주여자체격측정 대기모습



▶중심사 오층석탑

▼영화 '고래사냥'



리건판 사진 중에는 고고학 관련 자료가 1만4000여 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건축 1만1000여 점, 미술 6600여 점, 역사자료 3000여 점, 인류·민속

2700여 점이 각각 존재한다. 가로 160mm, 세로 115mm인 소형 건판이 전체의 85.6%를 차지하고, 가로 303mm, 세로 252mm인 대

형 건판도 8.5%에 이른다. 박물관이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는 온도 16~24도, 습도 40~60%인 전용 수조고에 보관 중이다.

1930년~2천년대 영화 350편 소장
100편 고화질 HD 서비스로 감상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한국영상자료원(원장 주진숙)은 지난 2007년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www.kmdb.or.kr) 사이트를 공식 오픈했다. 이를 통해 한국 영화에 대한 정보와 통계를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한국 고전 영화에 대한 VOD 서비스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한국 영화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170편에서 시작한 VOD 서비스는 현재 1930년대부터 2000년대 영화를 아울러 약 350편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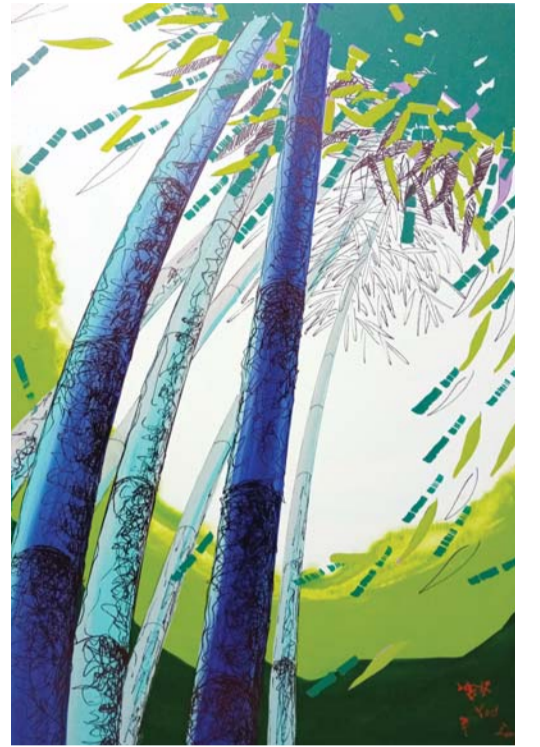
올 12월부터는 350편의 한국영화 중 약 100편에 대해 고화질 HD 서비스를 시작했다. 1934년에 개봉한 '청춘의 십자로'와 1949년 개봉한 '안장남 비행사'를 비롯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맨발의 청춘'(1964), '영자의 전성시대'(1975), '고래사냥'(1984), '씨받이'(1986) 등 각 시대의 다양한 한국영화를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VOD로 감상할 수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이밖에 한국영화, 외화, 기록영상물 등 작품 정보 2만6000건을 비롯해 3만 5000여 건의 인물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1만여 건의 포스터, 1만2000여 건의 영화각본, 2000여 건의 논문, 3만여 건의 기사와 평론, 13만여 건의 음반 등 관련 정보가 수록돼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박유자 작가 대나무 그림전
31일까지 담양 명지갤러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랫동안 해바라기를 소재로 작업해온 서양화가 박유자는 '해바라기 작가'로 불린다. 그녀가 담아내는 해바라기는 하늘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기도 하지만, 시들고 늘어져 기운을 잃은 모습도 보이며 희로애락이 담긴 우리의 삶을 은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녀가 이번에는 대나무를 전시 주제로 삼아 개인전을 연다. 오는 31일까지 담양군 고서면 명지갤러리에서 열리는 17번째 개인전 '저 높은 곳을 향하여'(Day and Night)는 그녀의 새로운 시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한 때 담양의 명물이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지난 봄부터 다시 전시관 역할을 재기한 명지갤러리(관장 우정은)에 맞춤형 전시다. 갤러리 재개장에 힘을 보탤 뎡 박 작가는 개인전을 위해 해바라기 작품 대신, 대나무 고향인 담양과 어울리는 '대나무' 소재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꾸렸다.

이번 전시작들은 1년간 집중적으로 작업한 작품이지만 그 출발은 2000년대 초반으로 올라간다. 해바라기, 소나무와 함께 대나무도 함께 그렸고, 특히 대나무는 개인 사정으로 그림을 놓아버리려 할 때 그녀를 잡아준 소재이기도 해 각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전시에서는 50호 대작 등 다양한 대나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시선 덕에 대나무는 규모가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휘어져서 색다른 조형미를 만들어낸다. 또 'Day and Night'이라는 전시 타이틀처럼 두개의 작품이 짝을 이뤄 달이 빛나는 밤과 환한 낮, 그리고 대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을 만들어낸다.

가는 펜으로 자유분방하고 섬세한 '선'의 매력을 절묘하게 살려 얇게 판화로도 보이는 작품은 아크릴 물감을 활용해 다양한 바탕색을 칠한 후 여러가지 빛깔을 넣어가며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또 보라, 초록 등 기존 해바라기 작품에서 볼 수 없는 톤다운된 색감을 사용, 차분한 정서를 전해준다. 작품에 포인트를 주는 건 자유분방하게 흩어지는 맺임들이다. 화폭에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수없이 지우고 그리기를 반복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박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그룹전과 아트페어에 참여했으며 한국미술과 사단법인 에보7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지행 '피렌체, 르네상스를 꽃 피우다'

22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사)인문지행에서 진행하는 50회 인문예술 도시기행 프로그램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피렌체, 르네상스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피렌체의 다양한 건축과 예술작품을 살펴보면서 미술, 문학, 건축 등이 자연스럽게 조화 융합하는 인문 도시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감상할 우피치 미술관의 명화는 카라바조의 '젊은 바쿠스'와 '이삭의 희생', 루벤스의 '승리', '이사벨라 브란트의 초상화', 렘브란트의 '젊은 날의 초상', 젠틸레스키의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등이다.

살페 불 건축은 당시 인문학의 산실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산마르코 수도원박물관과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을 비롯한 대표적 조각들을 볼 수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 등이다.

이번 기획의 특징은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회화를 감상하고 도시의 공공 건축과



카라바조 작 '젊은 바쿠스'

예술이 품고 있는 역사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으며, 참가비는 없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영천중 '겨울' 중딩영화제 대상...광덕중 '타임홀' 우수상

영천중학교의 '겨울'이 2019 중딩영화제 대상(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이 주최한 '2019 중딩영화제'가 19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중딩영화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산하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부산·강원·대전·인천·서울·울산·경기)의 자유학년제 미디어교육과 동아리미디어교육 참여 학생들의 활동을 공유하는 행사다.

대상을 수상한 영천중학교의 단편영화 '겨울'은 일상 속 잘못된 행동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교훈적 이야기를 폐쇄된 교실을 배경으로 선보인 스릴러 장르의 영화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광덕중학교의 '타임홀'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하남중학교의 '내 친구는 SNS 스타', 송원중학교 등 연합팀의 '시선'이 장려상을 받았다.

올해는 전국 14개 권역에서 총 189편의 영상, 라디오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날 행사장에서는 최종 본선에 진출한 13개 작품에 대한 수상 결과와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영화제를 찾은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으로 52만명 이상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 맛상무가 '52만 유튜브의 맛'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청소년 보컬 노유민 양(화정중 3학년)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